

지역 소식통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부안군은 오는 25일까지 부안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안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취업증개센터 일자리 창출 협력회의

정읍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읍시와 정읍시 취업증개센터(센터장 이만세)는 지난 10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체 협력 구축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열린 기관별 협력 회의에 이어 산업체들의 일자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재용 부시장과 이만세 취업 증개센터장, 이현대 전북과대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SK네슬리스, 하남, 우성공업, 푸드하다, 세창스틸 등 지역 내 19개 기관·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년 국가예산 증액 사활” “정읍시 농생명 첨단도시로”

심덕섭 고창군수, 국회 찾아 미반영 사업 설득 나서

심덕섭 고창군수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숭늉길 틈 없이 움직이고 있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국회단계에서 최종반영 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에 공을 들였다. 국회 상임위 회의에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지역 사업 반영을 위한 사업예산 증액 등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고창 출신 안규백 의원과 홍영표 의원, 강병원 의원을 연달아 면담했다. 고창 출신 국회의원으로 고창사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소관 상임위를 망라하고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을 면담. 환노위 소관 미반영 사업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은 명사십리 연안의 해안사구 복원과 안전한 해안 경

비를 위한 ‘국민안심해안 100사업의 시범 사업(150억원)’, ‘운곡탐사르습지의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30억원)’, ‘고창 영산기맥 양고살재 생태축복원사업(50억원)’, ‘국도 위협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97억원)’ 등 지역의 안전과 생태관광 등 주민 밀착형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 예산의 확보의 마지막 단계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며 “예산 1조시대를 열기 위한 밑바탕이 될 국가예산 확보에 남은 기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성과보고회 열어

정읍시 신정동 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10일 2022년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친환경 농업육성의 필요성 확대에 따른 안전한 미생물제품의 효능을 평가하고 R&D 지원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김대혁 센터장을 비롯해 전북대학교와 기업체 등 농·생명 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효능평가지원사업은 14억5천만원을 투입해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검증과 안전성 평가, 대량 배양과 제형 공정, 선도기업 육성 등 기업체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축산용 미생물센터는 국내 미생물 신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정읍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농생명의 첨단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전국 300여 개의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효능검증과 안전성 평가, 대량 배양과 제형 공정, 산업화 분야 등 3,600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사업비 100억원의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지원 시설 구축 사업을 확보해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주도형 신시장 개척을 통한 미생물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며 대한민국 미생물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고려청자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장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안군이 부안고려청자휴게소에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문을 열었다. 군은 10일 서해안고속도로 부안고려청자휴게소(서울방향)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장식을 갖고 제철 신선농산물과 품질 좋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시작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대보유봉(주) 대표,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과 군비 1억6천만원, 총사업비 4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93.08㎡, 1동 규모로 신축되었으며, 휴게소 이용객들이 접근하기 편한 위치에 건립돼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46농가 164개 품목이 입



부안군이 부안고려청자휴게소에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문을 열었다.

점되어 있으며 출하자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 마진을 축소하여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지역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장에 물신인편으로 협조해주신 한국도로공사 및 대보유봉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청년농업인 영농현장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현장을 방문하며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을 강조했다.

심덕섭 군수는 지난 9일 오후 배추, 무, 고추, 딸기, 생강 수확현장 등 청년 중심의 영농현장을 찾았다. 청년 농업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창군 농업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과 지원점을 토론했다. 청년 농업인들은 인력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작물의 변화와

각종 자연재해 등 농특지 않는 농업환경에 대한 농업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고충을 토로했다.

심덕섭 군수는 “지역소멸과 기후변화, 산업기술 활용, 첨단 식품 기술(Food Tech)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청년 농업인 육성이 중요하다”며 “청년농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군비지원 사업 6개 분야(중소영농기계, 원예특작생산단지 지



원,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 하우스자물재배용 수정발지원, 고추건조기 지원, 농산물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의 보조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시켰다. 인력 부족 문제 관련, 청년 농업인과 승계농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시켰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10일 2022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현장인 백산면 신곡창고를 찾아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올해는 쌀값 하락과 재료비 인상이란 이중고를 겪어 농업인들의 근심이 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현 군수는 수매현장을 방문하여 농심(農心)을 위로했다.

부안군은 지난 달 4일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12월말 건조벼까지 지난해보다 230% 증가한 총21.125여톤의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2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신동진, 해풍으로 매입에 혼란이 없도록

참여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당부하였다.

매입가격은 중간정산금(40kg포대당 3만원)을 수매 직후 농가에 지급하고 이후 수확기(11~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오는 12월말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는 쌀값 하락에 따른 큰 시련을 겪었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한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매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지도와 홍보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10일 2022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현장인 백산면 신곡창고를 찾아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올해는 쌀값 하락과 재료비 인상이란 이중고를 겪어 농업인들의 근심이 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현 군수는 수매현장을 방문하여 농심(農心)을 위로했다.

부안군은 지난 달 4일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12월말 건조벼까지 지난해보다 230% 증가한 총21.125여톤의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2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신동진, 해풍으로 매입에 혼란이 없도록

참여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당부하였다.

매입가격은 중간정산금(40kg포대당 3만원)을 수매 직후 농가에 지급하고 이후 수확기(11~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오는 12월말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는 쌀값 하락에 따른 큰 시련을 겪었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한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매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지도와 홍보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